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을 마치고

제54회 사법시험 2차 수험생

전 ○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운이 좋게 기회가 닿아 고시계에 제54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후기를 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재시를 치렀고, 당분간은 잔여 학기를 마무리할 예정중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올해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었기에 크게 아쉬움은 없었는데, 올해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 사뭇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이하 경어 생략).

II. 12.05. ~ 06. (3순환 이후)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한 관계로, 신입동보다 3순환이 늦게 끝났다. 마지막 민법 교수평가시험이 5.21자에 있었으니 시험까지 채 40일이 남질 않은 상태였다. 주변 지인분들은 4-2-1을 맞추려고 민법 중반부부터 4에 돌입하긴 하였으나, 중간에 민법을 버리고 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 3순환까지는 그대로 따라갔다. 3순환이 끝나니 평가시험 전주 금요일 포함 약 38일정도가 남아, 2-2-1을 계획하고 여유분으로 3일을 킵하는 것으로 일단 커다란 틀을 잡았고, 첫2는 첫날은 기본서 암기를, 둘째 날은 사례집을 풀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시작했다. 주말에는 공부를 영 못하는 성격이라, 상법이 2.5일이 걸려 밀릴 뻔 하였으나, 다행히 행정법과 헌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간신히 날짜를 맞춘 것 같다. 다음 2를 진입하기에 앞서, 차라리 암기효과를 극대화하는게 낫겠다 싶어 책과 사례집/시험지를 갈라서 먼저 책을 0.5로 돌리고, 사례집 및 시험지를 1.5로 그 이후에 돌리는 방식을 취했다. 작년 2,3순환 시험지를 선배에게 인수받은 것이 있어 2년분 시험지를 보려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듯하다. 다행히 3일의 여유분 시간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어서, 1(민법)2(기타과목)으로 나눠 한번 더 회독을 돌렸고, 마지막 1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과목을 돌렸다.

Ⅲ. 시험 첫날

1. 헌법 전까지

시험주 주말부터 잠을 못자기 시작하더니, 결국 시험 직전날은 수면제까지 먹었음에도 한숨도 못자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오히려 수면제로 잠이 안와 수면유도제를 추가로 먹은 게 두통을 유발해 급히 두통약 구하러 다니는 등 역효과만 크게 나서 골머리를 썩었던지 싶다. 들고 갈 책이 너무 많아진다 싶어, 사례헌법은 전날 새벽에 300에 없는 부분을 체크한 부분만 보고, 시험 전까지는 300과 모의고사에서 체크해 놓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시험장이 다행히 모교라 첫날은 시험장 분위기 파악도 할 겸 8시에 바로 입실하였던지 싶다. 작년보다는 시험장이 한 층 더 낮아졌지만, 여전히 5층이라 걸어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장소이고, 동선도 길어 약간 불편했다.

2. 헌법

솔직히 정신상태가 혼미한 상태로 시험을 쳐서 뭘 어떻게 쓰고 나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3순환 이후로는 답안작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다른 과목과 달리 헌법은 항상 타임오버가 나서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시간안배는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다. 몸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대강 초안 잡는데 20여분 정도 걸린 것 같고 1문의 1이 통치구조를 묻는 쟁점이라 난감했으며, 기본권론이 모두 2문의1, 2문의2에 몰려있어 2문 쓸 때 시간안배 때문에 상당히 초조했던 기억이 난다. 당연히 잘 알고, 편히 기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적법요건에서 정치하지 못하게 기술한 점도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3. 행정법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관계로 빨리 식사를 끝마치고 쉬는 시간동안 행정법을 준비했다. 전날 행정법을 대강 훑으며 찍어둔 쟁점을 위주로 보았고, 이후 사례집에서 애매하다고 생각해 찍어둔 쟁점을 보았다. 시간이 모자라 시험지는 다시 제대로 체크를 못했던 듯하다. 평소에도 잠을 상당히 많이 자는 편인데, 주말부터 제대로 못 잔데다 시험 전날 밤을 켜 영향으로 카페인제를 다량 투여했음에도 졸음이 가지질 않아 꽤나 고생한 기억이 난다. 다행히 행정법은 기계적으로 쓰는 쟁점이 많이 나와 애로사항이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다만 2문의 2의 1문은 배점에 비해 쓸 양이 많고, 2문 및 1문의 1은 쓸 양이 적어 어디까지 써야 하나 상당히 고민한 기억이 난다. 1문 역시 평소

에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만을 10점 내로 기술하였는데, 15점에 달하는 배점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출제되어 소송요건 일반을 어느 부분까지 다루어 줘야 하나 상당히 고민하였다.

IV. 시험 둘째날

1. 시험 시작 전까지

시험이 끝나고 저녁을 먹자마자 잠을 자기 시작했다. 11시 즈음에 일어나서 상법부터 보기 시작하였고, 이후 민소법을 보기 시작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는데, 당연히 다음날 과목을 순서대로 보는 건줄 알았는데 다음날 두 번째 과목을 먼저 보고 첫 과목으로 돌아가는게 일반적이라 들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전체 시험 일정 중 둘째날이 분량이 가장 많은 관계로 전체를 1독하는 것은 포기하고, 주요 쟁점은 안다고 전제하고, 책 전체를 스캐닝 하면서 미심쩍은 부분을 위주로 보았다. 상법 시작 전에는 평소에 전혀 보지 않는 합병/합자/유한회사, 해상법, 사채부분을 주로 보았다.

2. 상법

1문의 1이 쓰라는건 최신판례 같은데, 논리구성이 안되서 상당히 고생한 것 같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는 문항은 없었던지 싶은데, 1문의 4가 배점에 비해 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다.

작년에 초시 칠 때도, 그 전년도에 상총, 어수가 나와 어수, 보험이 나오리라 예상하고 상총을 보지 않고 들어갔다가 상총이 나와서 난감했는데, 최근 10년간 상총이 3년 연속으로 나온 적이 없어 설마 상총이 나올까 하고 상총을 화증만 보고 갔는데, 올해 또 상총이 나와 상당히 의외였다. 상법부터 본격적으로 문항의 개수가 많아져(10개) 처음으로 시간안배가 무너졌다. 2문의 2에 들어가니 10분밖에 남지 않아 보험법 문제를 조문 위주로 간략하게만 기술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

3. 민사소송법

금년 민사소송법은 작년의 불의타(2문의2)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지 A급 또는 B급으로 찍히는 쟁점들만 나오지 않았나 싶다. 특히 1문의 경우 오랜만에 통목차 문제가 나와 상당히 신선했다. 2문의 1도 소송 중 사망에 관한 논의가 합병의 형태로 제출되었고, 2문의 2도 결의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피고적

격과 소송요건의 조사방식,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이 제출되어 무난하였던 것 같다. 자리가 맨 앞자리라 답안지를 제출하면 취합하는 과정에서 뒷면이 다 보였는데, 거의 모두 8면을 가득 채운 것 같아서 내심 불안하기도 했다. 다 같이 잘 쓰는 쟁점이면 일반적으로 점수 따는게 상당히 어려워지니 말이다.

V. 시험 셋째날

1. 형법 시작 전까지

올해 시험에서는 잠을 제시간에 자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으나,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셋째날도 저녁을 먹고 바로 잠을 자기 시작해서, 열한시정도에 일어나 책을 보기 시작했다. 형법은 책은 가볍게 스킵하고, 사례집과 모의고사 시험지를 위주로 헛갈리는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 도출을 위주로 했다. 형소는 책을 읽으며 미심쩍은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 다음날 낮에 볼 부분만 따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봤다. 두 과목 모두 책과 사례집을 보고 나니 새벽 5시 정도 되었던 듯하다.

2. 형법

1문의 2가 쟁점에 비해 쓸 양도 많았고, 1문의 3,4가 쟁점에 비해 쓸 양이 적어 혹시나 숨겨진 쟁점이 있는지 상당히 고민하였다. 2문의1의 경우 평소에는 경시하던 문서의 개념이 정면으로 출제되어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들이 의미가 없지 않을진데, 관련 쟁점이 도통 잘 보이지 않아 상당히 애를 먹었던 듯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2문의 2를 먼저 작성하고, 돌아와서 2문의 1을 작성했고, 다행히 정시에 맞춰 답지를 제출할 수 있었다.

3. 형사소송법

올해 시험에서 가장 악몽같았던 시간이 아닌가 싶다. 시험 직전에 책을 제대로 보질 못해 조금 더 붙잡고 있다는 게 화장실 갈 타이밍을 놓쳐서 두시간 내내 굉장히 고생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감독관의 동행 하에 화장실을 같이 갈 수 있다 본 것 같은데, 변호사 시험이 갑자기 부러워지는 시간이었다. 1문의 3은 1,2 모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쟁점이라 상당히 난해했고, 2문의 2도 재심이야 평소에 자주 보지만 비상상고는 나오기가 곤란하다 들어 경시하였는데, 정면으로 출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VI. 마지막날

1. 1교시 시작 전까지

형소법을 치고 나서 반쯤 패닉에 빠져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대강 책을 훑으며 들어간 것 같다. 단일과목으로는 양이 가장 많긴 하지만 그래도 두 과목 합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민법의 양이 작다는 점도 나태해진 데 한 몫 한 것 같다. 덕분에 사례는 거의 못보고 책만 두 번 정도 읽고 시험을 친 듯하다.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 마지막 날은 어김없이 비가 내려 시험장에 들어가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특히 비가 내리면 필자야 공부할 때 원체 시끄럽게 공부를 하는 타입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 걸을 때마다 소리가 많이 나서 다른 분들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많이 되었다.

2. 1교시

상법과 마찬가지로 민법도 설문이 열 개로 구성되어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때문에 민법도 시간안배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다. 1문의 3을 쓸 때 채권발생시기를 나눠 쓰고 있었는데, 뭔가 잘 못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2문을 먼저 쓰고 와서 봤더니 완공 시기를 그제서야 보아 식은땀을 흘렸다. 상속재산 분할시 담보책임은 1차 뒤로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생소했던 듯하다. 특히 2문의 1의 4문의 경우 1~3문까지 상정된 乙의 지위가 갑자기 변경됐는데, 차라리 당사자를 하나 추가하는게 혼란 방지를 위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2교시

1교시에 가족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가족법은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만 빠르게 일독했다. 다행히 3문은 무난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다. ‘가시는 길 편안하게’ 이런 느낌이랄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다들 대동소이하게 답안이 나오는지라, 답안지에 차별화를 기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답안 구성에 애를 먹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또, 당사자가 甲~乙에 ABCD까지 총 10명씩이나 나와 그림 그리는데 조금 고생한 듯하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옆면이 공란이어서 거기에 큼지막히 그리면 되었는데, 왜 바보같이 설문 위 좁은 공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건지...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VII. 시험장을 나오며

점심을 기점으로 비가 점점 그치더니, 시험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덧 비가 개어 있었다. 분명 작년에 비하여는 내용적으로는 충실히 기재한 듯하면서도, 누락된 쟁점은 더 많은 듯하여 후기를 작성하는 이 시점까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글씨가 심히 악필인 관계로(여지껏 필자보다 글씨가 좋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교수님이 과연 답안을 보고 판독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한 고민 및 2~3순환을 알차게 보내지 못한 점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요인인지 싶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미 활시위는 손을 떠났으니, 결과가 나오기까지 겸허히 기다려야 할 성 싶다. 이 글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에게도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였으면 한다.